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전혜경¹ · 고영²

¹중앙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생, ²가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eon, Hye Kyung¹ · Ko, Young²

¹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Incheon, Republic of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TSE) and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tudy. A total of 352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two universities in Incheon and Gyeonggi.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Scheffe's tes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score of TSE was 6.20 (out of 10). The mean score of cultural competence was 4.98 (out of 7). TS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ultural competence ($r=.47, p<.001$). The practical domain ($\beta=.18, p=.001$) and affective domain ($\beta=.35, p<.001$) of TS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ultural competence. TSE accounted for 22.3% of cultural competence. **Conclusion:**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ing cultural competence should include contents to improve the affective and practical domains of TSE. It is also helpful for subject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to learn interview skills and nursing skills through practice to reinforce cultural competence.

Key Words: Self efficacy,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diversity, Student, Nursing

서론

한국은 국제결혼에 따른 외국인 유입, 기피업종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한국계 중국인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국적별로는 중국 45.2%, 태국 8.4%, 베트남 8.3%, 미국 6.4%, 우즈베키스탄 2.9%, 일본 2.6%, 필리핀 2.5% 순이며, 자격으로는 재외동포가 18.5%, 비전문취업이 11.8%, 방문취업이 10.6% 순으로[1], 다양

한 나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2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어[1], 곧 인구집단의 5.0%가 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 대상자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국내 외국인 건강관리에 많은 제약이 있다. 예로, 외국인 노동자는 해당 국가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임금은 적고, 더 오래 일하며 더 많은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좋지 않은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

주요어 자기효능감, 문화적 역량, 문화적 다양성, 간호, 학생

* 이 논문은 제1저자 전혜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1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Gachon University.

IRB 승인기관 및 번호: 가천대학교 [IRB No: 15-A-00000394]

Corresponding author: Ko, Young (<https://orcid.org/0000-0003-2708-8543>)

College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191, Hambangmoe-ro, Yeonsu-gu, Incheon, 21936, Korea

Tel: 82-32-820-4205 Fax: +82-32-820-4201 E-mail: youngko@gachon.ac.kr

Received: 27 September 2020 Revised: 23 October 2020 Accepted: 24 October 2020

다[2].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이 클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 정보 부족, 이용시간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꺼리고 있다[3]. 결혼이민자 또한 의료기관의 낮은 접근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료비용 부담 등으로 의료이용에 낮은 만족감을 보였다[4]. 다문화 대상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의료인도 다문화 대상자의 과거 병력, 가족력, 출신국의 일반적 보건 상황 등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는 게 어렵고 다문화 대상자의 생활양식 및 건강행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그들의 의료이용을 돕기 어렵다[5].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은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근거없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인해 환자와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6]. 그러므로 의료인의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더불어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다문화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간호사가 다문화 대상자를 돌보기 전에 다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 가치, 관습, 행동 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문화적 역량이라 한다[7]. 간호사에게 문화적 역량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8]. 간호대학생 또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대응하며,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갖춘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예비 전문 간호 인력으로 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Jeffreys [9]는 문화적 역량 학습 과정에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다문화 자기효능감을 개념화하였다.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대상자에게 문화간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써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다른 문화 집단의 전통, 신념, 관습과 가치를 이해하고, 개인, 가족,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 내에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10]. 또한 다문화 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학습 동기를 갖고 문화적 역량 학습과 수행에 몰입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 역량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에서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간호대학에서 다문화 간호에 대한 지식을 일부 학습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 실습에서 다문화 간호를 관찰하고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6]. 이렇게 다문화 대상자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낮은 문화적 인식과 지식수준으로 민감한 간호를 수행하기 어렵다[6]. 그러므로 예비 간호사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다문화 간호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문화적 역량을 확인하고 다문화 자기효능감

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파악하여, 다문화 대상자의 건강요구를 바르게 이해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파악한다.
- 넷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에 있는 2개 간호대학 24학년 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5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이 약한 상관관계($r < .20$)라 가정하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5.0%로 산출한 결과 총 319명의 표본 수가 추정되었다. 380명을 표본으로 임의 추출하였고,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을 보인 28명을 제외한 352명이 최종 연구대상자로 포함되어 필요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문화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를 조사하였다. 문화 관련 특성은 다문화 친인척, 다문화 친구, 외국인 대상자, 외국 방문경험, 외국 거주경험, 의사소통 가능 외국어 유무, 외국어 실력, 외국인 접촉빈도, 다문화 교과목 경험, 다문화 프로그램 경험, 다문화 간호교육 필요성을 묻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2)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원 도구 개발자인 Jeffreys [9]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한글로 번안된 김선희[8]의 도구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총 83문항의 도구로 하부범주는 다문화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지(25문항), 실무(28문항), 정서(30문항)로 구성되어있다.

인지는 간호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실무는 다양한 간호 실무에서 다문화 대상자의 가치와 신념을 알아내기 위한 면담능력을 의미한다. 정서는 문화적 인식, 수용, 이해, 옹호 등에 대한 자신의 태도, 가치, 신념을 의미한다 [9]. 척도는 1점(자신없음)에서 10점(완전히 자신이 있음)의 평정척도이다. 총합산 점수의 범위는 83점에서 830점까지이며, 평균점수로 산출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efferys [9]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9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김선희[8]의 연구에서 한글 번역했을 때의 내용 전달력을 확인하였으며, 다문화 전문가와 간호사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Cronbach's α 도 .98로 확인되었다[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4였다.

3) 문화적 역량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은 한국 간호사의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채덕희[10]가 개발한 문화적 역량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33문항의 도구로 하부범주는 문화적 인식(6문항), 문화적 지식(7문항), 문화적 민감성(12문항), 문화적 기술(8문항)로 구성되어있다. 문화적 인식은 대상자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간호를 기대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문화적 지식은 민족, 인종 간에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건강과 질병의 인식, 건강관리 행위의 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아는 것이다. 문화적 민감성은 대상자를 존중하고 공감하며,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며, 문화적 기술은 기존에 습득한 인식, 지식과 민감성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능력이다[10].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총합산 점수의 범위는 33점에서 231점까지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는 .93으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1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2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15-A-0000394),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인천과 경기도 소

재의 2개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본 연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간호학과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자유의지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설명하였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설문지를 받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작성된 동의서 1부와 설문지는 수거 상자에 직접 넣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에 충실성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감사의 표시로 설문지와 함께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코딩,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징 및 문화 관련 특징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문화적 역량에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델 1에는 문화적 역량과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일반적 특성과 문화 관련 특성의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델 2에서는 다문화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인 인지, 실무, 정서를 투입하여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설명력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 관련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80(± 2.68)세로 대부분 여학생(88.6%)이며 학년은 2학년이 20.5%, 3학년이 40.3%, 4학년이 39.2%였다(Table 1). 대상자의 9.7%가 결혼한 다문화 친척이 있고, 13.4%만이 다문화 친구가 있었으나,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접촉 경험은 41.8%, 외국방문 경험은 60.2%로 높았다. 또한 59.9%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간호대학생 중 다문화 교과목을 교육받은 경우는 40.6%였으며 다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대상자는 11.6%였다. 다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경험자 중 92.7%는 학교에서 비교과목 과정(초청강연, 단기교육과정 등)과 동아리 활동으로 경험하였으며, 4.9%는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교회, 성당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74.1%가 간호교육에서 다문화 간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lture related Characteristics

(N=352)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SD
Gender	Male	40	11.4	
	Female	312	88.6	
Age(years)				21.80±2.68
Religion	Yes	201	57.1	
	No	151	42.9	
Grade	2 nd grade	72	20.5	
	3 rd grade	142	40.3	
	4 th grade	138	39.2	
Have foreign relatives	Yes	34	9.7	
	No	318	90.3	
Have foreign friends	Yes	47	13.4	
	No	305	86.6	
Experience of contact with foreigners	Yes	147	41.8	
	No	205	58.2	
Experience of travelling abroad	Yes	212	60.2	
	No	140	39.8	
Experience of living abroad(≥1 month)	Yes	97	27.6	
	No	255	72.4	
Foreign language available for communication	Yes	211	59.9	
	No	141	40.1	
Foreign communication skill	Never	91	25.9	
	Not fluent	215	61.1	
	Fluent	46	13.1	
Contact frequency of foreigners	Never	130	36.9	
	Sometimes	204	58.0	
	Frequently	18	5.1	
Experience of multicultural subject	Yes	143	40.6	
	No	209	59.4	
Experience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Yes	41	11.6	
	No	311	88.4	
A place to experi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s (n=41)	University	35	85.4	
	Club activity	9	7.3	
	Community	6	4.9	
	Others	1	2.4	
	No	311	88.4	
Necessity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Very needed	61	17.3	
	Needed	200	56.8	
	Not needed	91	25.9	

M=Mean; SD=Standard deviation

2.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은 Table 2와 같다.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10점 만점에 6.20점, 다문화 자기효능

감의 하위영역인 인지는 6.32점, 실무는 5.55점, 정서는 6.72점이었다. 문화적 역량은 7점 만점에 4.98점이며, 하위영역인 문화적 인식은 5.27점, 문화적 지식은 4.66점, 문화적 민감성은 5.14점, 문

Table 2.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N=352)

Characteristics	Category	Range	Min	Max	M±SD
Transcultural Self-efficacy	Cognitive	1-10	1.40	10.00	6.32±1.67
	Practical	1-10	1.50	9.79	5.55±1.33
	Affective	1-10	2.34	8.97	6.72±0.97
	Total	1-10	2.12	9.56	6.20±1.02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awareness	1-7	1.83	7.00	5.27±1.05
	Cultural knowledge	1-7	1.29	7.00	4.66±1.10
	Cultural sensitivity	1-7	1.67	7.00	5.14±1.05
	Cultural skill	1-7	1.13	7.00	4.83±1.09
	Total	1-7	2.21	7.00	4.98±0.77

M=Mean; SD=Standard deviation

화적 기술은 4.83점이었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외국어 실력($F=3.88, p=.022$), 다문화 간호 교육프로그램 경험($t=2.51, p=.013$), 다문화 간호교육 필요성($t=8.1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에서 인지는 외국 방문경험 여부($t=-2.00, p=.045$), 다문화교과목 경험($t=2.60, p=.010$), 다문화 간호교육 필요성($F=7.38,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실무는 다문화 친구 유무($t=2.17, p=.034$), 외국 거주경험($t=2.05, p=.041$), 의사소통 기능($t=2.51, p=.012$), 외국어 실력($F=7.05, p=.001$), 다문화 간호 교육프로그램 경험($t=2.54, p=.012$)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서는 학년($t=4.32, p=.014$), 다문화 친척 유무($t=2.06, p=.040$), 외국 거주경험($t=3.44, p=.001$), 외국어 실력($F=6.34, p=.002$), 다문화 교과목 경험($t=2.21, p=.028$), 다문화 간호교육 필요성($t=4.38, p=.013$)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외국 거주경험($t=2.48, p=.014$), 의사소통 기능($t=2.04, p=.043$), 외국어 실력($F=8.25, p<.001$), 다문화 간호 교육프로그램 경험($t=2.11, p=.039$), 다문화 간호교육 필요성($t=4.91, p=.008$)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적 역량의 하부범주에서 문화적 인식은 종교($t=3.00, p=.003$), 외국어 실력($t=3.60, p=.028$), 다문화교과목 교육경험($t=2.47, p=.014$), 다문화 간호교육 필요성($t=3.12, p=.04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문화적 지식은 학년($F=3.39, p=.035$), 다문화교과목 교육경험($t=2.99, p=.003$)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적 민감성은 외국 거

주경험($t=4.30, p<.001$), 의사소통 기능($t=2.81, p=.005$), 외국어 실력($F=10.94, p<.001$), 다문화 간호교육 필요성($F=4.12, p=.017$)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적 기술은 다문화교과목 교육경험($t=2.23, p=.026$), 다문화 간호교육 필요성($F=5.39, p=.0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5.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한 양적 상관관계($r=.47, p<.001$)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던 외국어 실력, 다문화 간호 프로그램 경험, 다문화 간호교육 필요성과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을 모델 1에 투입하고, 모델 2에서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인 인지, 실무, 정서를 투입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문화적 역량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으나, 외국어 실력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높은 변수인 외국 거주경험과 의사소통 기능은 모델에 투입하지 않았다. 모델 1에서 외국어 실력이 매우 유창함($\beta=.22, p<.001$), 다문화 간호교육이 매우 필요함($\beta=.08, p=.010$)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델 1의 설명력은 5.8%이었다. 모델 2에서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인 인지, 실무, 정서를 투입한 결과, 외국어 실력이 유창함과 다문화 간호교육이 매우 필요함의 유의성은 사라지고, 실무영역($\beta=.18, p=.001$), 정서영역($\beta=.35, p<.001$)이 다문화 간호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델 2의 전체 설명력은 28.1%이었으며,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문화적 역량의 22.3%를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Table 3. Transcultural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lture related Characteristics (N=352)

Characteristics	Category	Transcultural Self-efficacy		Cognitive domain		Practical domain		Affective domai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6.34±1.15	0.97	6.54±1.79	0.91	5.70±1.50	0.78	6.79±0.91	0.44
	Female	6.18±1.00	(.363)	6.29±1.65	(.439)	5.53±1.30	(.668)	6.71±0.97	(.333)
Religion	Yes	6.24±0.95	-1.04	6.37±1.67	-0.75	5.65±1.25	-1.69	6.70±0.92	0.36
	No	6.13±1.11	(.302)	6.23±1.66	(.454)	5.40±1.42	(.093)	6.74±1.02	(.718)
Grade	2 nd grade ^a	5.96±1.02		6.08±1.73		5.30±1.27		6.49±0.94	4.32
	3 rd grade ^b	6.23±1.01	2.55	6.43±1.65	1.04	5.58±1.34	1.60	6.68±1.01	(.014)
	4 th grade ^c	6.28±1.02	(.079)	6.32±0.89	(.355)	5.64±1.33	(.202)	6.89±0.97	a<c
Have foreign relatives	Yes	6.50±1.01	1.83	6.59±1.52	1.02	5.86±1.51	1.45	7.04±0.84	2.06
	No	6.16±1.02	(.067)	6.29±1.68	(.307)	5.52±1.30	(.147)	6.69±0.97	(.040)
Have foreign friends	Yes	6.41±1.26	1.30	6.43±1.95	0.52	5.98±1.50	2.17	6.82±1.10	0.75
	No	6.16±0.98	(.198)	6.30±1.62	(.602)	5.48±1.28	(.034)	6.70±0.94	(.451)
Experience of contact with foreigners	Yes	6.29±1.12	-1.50	6.33±1.66	-0.18	5.71±1.51	-1.91	6.83±1.06	-1.78
	No	6.12±0.94	(.137)	6.30±1.68	(.856)	5.43±1.16	(.057)	6.64±0.89	(.077)
Experience of travelling abroad	Yes	6.18±1.10	-0.30	6.17±1.70	-2.00	5.63±1.43	1.54	6.74±1.04	0.54
	No	6.21±0.89	(.761)	6.53±1.59	(.045)	5.42±1.14	(.125)	6.69±0.84	(.591)
Experience of living abroad(≥1 month)	Yes	6.34±1.13	1.61	6.22±1.82	-0.63	5.78±1.43	2.05	7.00±0.99	3.44
	No	6.14±0.97	(.108)	6.35±1.60	(.532)	5.46±1.27	(.041)	6.61±0.93	(.001)
Foreign language available for communication	Yes	6.27±1.05	1.70	6.35±1.63	0.50	5.64±1.38	2.51	6.77±1.03	1.14
	No	6.08±0.97	(.089)	6.26±1.73	(.618)	5.33±1.21	(.012)	6.65±0.86	(.254)
Foreign communication skill	Never ^a	6.03±1.03	3.88	6.25±1.71		5.29±1.32	7.05	6.56±1.06	6.34
	Not fluent ^b	6.19±0.95	(.022)	6.35±1.60	0.12	5.53±1.25	(.001)	6.70±0.85	(.002)
	Fluent ^c	6.54±1.24	(a<c)	6.30±1.90	(.886)	6.17±1.51	a,b<c	7.16±1.14	a,b<c
Experience of multicultural subject	Yes	6.30±0.82	1.83	6.59±1.55	2.60	5.48±1.16	-0.81	6.85±0.75	2.21
	No	6.12±1.14	(.069)	6.13±1.72	(.010)	5.59±1.43	(.420)	6.63±1.08	(.028)
Experience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Yes	6.57±0.96	2.51	6.70±1.54	1.61	6.04±1.48	2.54	6.96±0.78	1.66
	No	6.15±1.02	(.013)	6.26±1.68	(.107)	5.48±1.29	(.012)	6.69±0.98	(.097)
Necessity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Very needed ^a	6.62±1.08	8.12	7.00±1.55	7.38	5.83±1.47	2.73	7.03±1.00	4.38
	Needed ^b	6.17±0.95	(<.001)	6.25±1.67	(.001)	5.56±1.22	(.066)	6.70±0.93	(.013)
	Not needed ^c	5.96±1.05	c<a,b	5.99±1.63	b,c<a	5.33±1.42	c<a	6.57±0.99	c<a
Total		6.20±1.02		6.32±1.67		5.55±1.36		6.72±0.97	

M=Mean; SD=Standard deviation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중간 점수 이상인 6.20점으로, 정서, 인지, 실무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기존 연구결과[8]와 비교했을 때, 연구대상의 다문화 자기효능감 점수는 국내 간호사(4.54점)보다 높았다. 이는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경험의 차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내 간호사의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친구가 있는 경우가 11.6%, 다문화 교육경험이 4.6%로

낮았지만[8],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친구가 있는 경우가 13.4%, 다문화 대상자 경험은 41.8%, 다문화 교육경험은 40.6%로 많았다. 이러한 문화 관련 특성과 교육경험의 차이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간호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다문화 문화 경험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간호대학생의 7.54점보다 낮았다[11].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정서, 인지, 실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간호사와 같은 결과였다[8]. 정서는 문화

Table 4. Cultur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lture related Characteristics

(N=352)

Characteristics	Category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awareness		Cultural knowledge		Cultural sensitivity		cultural skill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5.02±0.89	0.36	5.42±1.03	0.99	4.53±1.11	-0.76	5.24±1.09	0.68	4.83±1.28	0.02					
	Female	4.98±0.76	(.722)									(.324)	(.445)	(.495)	(.998)	
Religion	Yes	4.95±0.77	0.88	5.25±1.06	3.00	4.65±1.08	0.15	5.10±1.06	0.82	4.87±1.13	-0.89					
	No	5.02±0.79	(.379)									(.003)	(.883)	(.411)	(.374)	
Grade	2 nd grade ^a	4.90±0.69		5.46±0.95	0.99	4.36±0.92	3.39	5.22±1.01	0.33	4.64±1.03	2.41					
	3 rd grade ^b	5.01±0.75	0.54									(.584)	(.374)	(.035)	(.720)	(.091)
	4 th grade ^c	5.00±0.84											a<b			
Have foreign relatives	Yes	5.04±0.94	0.47	5.36±1.01	0.65	4.54±1.17	-0.64	5.30±1.12	1.00	4.83±1.20	0.03					
	No	4.98±0.75	(.638)									(.516)	(.521)	(.316)	(.975)	
Have foreign friends	Yes	5.13±0.95	1.19	5.25±1.03	1.19	4.75±1.18	0.65	5.35±1.11	1.53	4.90±1.18	0.52					
	No	4.96±0.74	(.239)									(.234)	(.517)	(.126)	(.606)	
Experience of contact with foreigners	Yes	5.02±0.82	-0.85	5.24±1.06	-0.06	4.64±1.12	0.26	5.26±1.04	-1.82	4.83±1.11	-0.03					
	No	4.95±0.74	(.399)									(.949)	(.799)	(.069)	(.976)	
Experience of travelling abroad	Yes	5.02±0.82	1.28	5.26±1.05	1.80	4.66±1.18	0.03	5.22±1.06	1.95	4.80±1.13	-0.51					
	No	4.92±0.69	(.201)									(.073)	(.977)	(.052)	(.612)	
Experience of living abroad(≥1 month)	Yes	5.16±0.85	2.48	5.14±1.04	0.72	4.62±1.24	-0.43	5.51±1.07	4.30	4.96±1.05	1.48					
	No	4.92±0.73	(.014)									(.473)	(.663)	(.001)	(.141)	
Foreign language available for communication	Yes	5.05±0.82	2.04	5.24±1.02	1.67	4.62±1.16	-0.69	5.26±1.01	2.81	4.88±1.06	1.14					
	No	4.88±0.70	(.043)									(.097)	(.493)	(.005)	(.257)	
Foreign communication skill	Never ^a	4.90±0.68	8.25	5.15±1.08	3.60	4.64±1.03	0.73	5.00±1.03	10.94	4.79±1.19	2.41					
	Not fluent ^b	4.93±0.75	(<.001)									(.028)	(.483)	(.001)	(.091)	
	Fluent ^c	5.40±0.94	a,b<c									b<c		a,b<c		
Experience of multicultural subject	Yes	5.03±0.66	1.08	5.63±1.03	-2.47	4.86±0.95	2.99	5.14±0.92	0.05	4.98±1.05	2.23					
	No	4.95±0.85	(.281)									(.014)	(.003)	(.957)	(.026)	
Experience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Yes	5.16±0.56	2.11	5.38±1.06	0.36	4.95±1.01	1.86	5.27±0.79	1.07	5.08±0.09	1.59					
	No	4.96±0.80	(.039)									(.721)	(.065)	(.287)	(.112)	
Necessity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Very needed ^a	5.25±0.89	4.91	5.26±1.07	3.12	4.72±1.17	0.12	5.46±1.21	4.12	5.20±1.12	5.39					
	Needed ^b	4.95±0.77	(.008)									(.045)	(.889)	(.017)	(.005)	
	Not needed ^c	4.88±0.66	b,c<a									c<b		c<a	b,c<a	
Total		4.98±0.77		5.30±0.98		4.66±1.10		5.13±1.05		4.83±1.09						

M=Mean; SD=Standard deviation

적 인식, 수용, 이해, 옹호 등에 대한 태도, 가치, 신념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간호대학생뿐만 아니라 미국[8]과 그리스[12] 간호대학생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영역이었다. 국내 간호대학생은 실무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그리스 간호대학생[12]과는 같은 결과지만, 미국 간호대학생[8]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국내 간호대학생이 실무에 관한 항목 중 특히 언어 선호성, 종교적 관례 및 신념, 종교적 배경 및 정체성, 민간의료 및 사용, 인종적 배경 및 정체성, 성역할 및 책임, 세계

관 등의 주제에 대해 면담할 자신이 없어 나타난 결과이다[9]. 미국의 다문화 역사는 한국보다 길며 다문화 인구 분포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높아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노출 기회와 이해 정도가 높고 다문화 대상자를 위한 간호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8]. 자기효능감이 성공적 경험과 관찰 경험을 통해 증가한다는 이론[13]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정서와 인지 측면과 함께 실무에서 다문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Comparison group(reference group)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Female(male)	-.05	-0.88	.382	-.01	-0.11	.916
3 rd Grade(2 nd grade)	.08	1.12	.266	.01	0.21	.837
4 th Grade(2 nd grade)	.06	0.85	.397	-.04	-0.67	.504
Fluent foreign communication skill(never)	.03	0.51	.608	-.20	-0.38	.702
Very fluent foreign communication skill(never)	.22	3.72	<.001	.11	1.95	.052
Experience of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no experience)	.08	1.57	.121	.02	0.50	.619
Needed th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not needed)	.03	0.50	.618	-.01	-0.14	.891
Very needed th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not needed)	.08	2.57	.010	.06	1.10	.275
Cognitive domain				.09	1.69	.091
Practical domain				.18	3.27	.001
Affective domain				.35	6.84	<.001
Adjusted R ²		.058			.281	
△Adjusted R ²					.223	
F(p)		3.71(<.001)			13.44(<.001)	
△F(p)					36.33(<.001)	

β =standardized coefficients

본 연구에서 실무에서의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다문화 친구가 있거나 외국 거주경험이 있으며, 외국어 실력이 좋아 의사소통 할 수 있고 다문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경우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다문화 대상자와의 임상적 만남이 다문화 자기효능감을 높였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8,14]. 그러므로 다문화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에게 다문화 대상자와 장기간 관계를 형성하고 간호를 제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전공 체험이나 해외 봉사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서에 대한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 관련 경험뿐만 아니라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지와 실무에 대한 다문화 자기효능감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저학년에서 건강관리모형이나 보건의료의 사회문화적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 간호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환경과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장기간 변화하는 역동성을 갖는다는 사실[15]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이론교육과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4.98점으로 중간점수보다 낮았으며,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 중에는 문화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기존연구결과[7,16]와 비교한 결과, 간호사(4.80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7]. 또한 문화적 인식을 제외한 모든 하부영역 점수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7]보다 높았으나 미국 간호대학생[16]보다는 낮았다. 문화적 역량 중 문화적 인식은 대상자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간호를 기대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7]. 간호사는 간호현장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자를 만나면서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호개념과 문화적 차이를 생각해볼 기회를 많이 얻게 되어 문화적 인식의 점수가 간호대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지식의 점수가 간호사에 비해 높았다. 이는 간호사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경험이 높고, 다문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의 환경이 국제화되면서 지식습득 경험이 간호사보다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문화에 대한 경험과 의사소통능력이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7],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기술 또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은 외국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수록, 다문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수록 높았다. 문화적 역량 역시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유사하게 다문화 대상자와의 잦은 접촉이 주요한 강화요인이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에서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문화접촉이 문화적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8]

와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결과[19]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문화적 역량의 22.3%를 설명하며, 다문화 자기효능감의 정서와 실무는 문화적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에서 다문화 인식보다 문화적 공감에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0]를 통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의 이해와 다문화 간호에 대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후 다문화 대상자와의 면담기술과 간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겠다. 교과 영역보다 비교과영역에서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21], 다문화 문화체험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에 있는 2개의 간호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참여대상 대학교와 대상자가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있어,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3학년과 4학년은 임상 실습으로 다문화 대상자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임상 실습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 경험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경험이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은 정서 영역에서 가장 높고, 인지, 실무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경험이 많고, 외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높고, 문화적 역량이 높았으며, 다문화 자기효능감의 정서와 실무영역은 문화적 역량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우선 정서 영역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실무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대상자와의 면담기술과 간호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외국어 능력향상 및 다문화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에서의 다문화 대상자의 간호경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다문화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향상 정도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ORCID

Jeon, Hye Kyung

<https://orcid.org/0000-0003-3164-1436>

Ko, Young

<https://orcid.org/0000-0003-2708-8543>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Censu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20 [cited 2020 Sep 24] Available from: <http://kosis.kr/>
2. Moyce SC, Schenker M. Migrant workers and thei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018;39:351-65. <https://doi.org/10.1146/annurev-publhealth-040617-013714>
3. Kim S. The conception and factors that affect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among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2015;18:255-97. <https://doi.org/10.15400/mccs.2015.04.18.255>
4. Kim C, Park M, Kim EM. Married immigration women's utilization of health care and needs of health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1;22(3):333-41.
5. Seol D, Hong SK, Goh HU, Kim IT. Survey on the health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Research and Service Report*. Seoul: Korea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Health and Development. 2005 December.
6. Son M, Yi B. A study on cultural competency development of nurses with experience in multicultural nursing.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2015;10(3):1-25.
7. Chae D, Park Y, Kang K, Lee 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2;18(1):76-86.
8. Kim SH.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3;43(1):102-13. <https://doi.org/10.4040/jkan.2013.43.1.102>
9. Jeffreys MR. *Teach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and health care*. 2nd ed. New York, NY: Springer; 2010. p. 45-94.
10. Chae DH.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s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13. p. 1-140.
11. Jeffreys MR, Dogan E. Evaluating the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on students' transcultural self-efficacy perception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012;23(2):188-97. <https://doi.org/10.1177/1043659611423836>
12. Sarafis PA, Malliarou MM. Cultural self-efficacy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a Greek University. *Iranian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Research*. 2013;18(6):446-50.
13.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W. H. Freeman and Company; 1997. p. 79-115.
14. Jeffreys MR, Smoldlaka I. Exploring the factorial composition of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tool.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1998;35(4):217-25.
15. Jeffreys MR.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tool: a synthesis of finding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000;11(2):127-36. <https://doi.org/10.1177/104365960001100207>
16. Caffrey RA, Neander W, Markle D, Stewart, B. Improv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results of integrating cultural content in the curriculum and an international immersion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5;44(5):234-40.

17. Yang S.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s,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7):334-45. <https://doi.org/10.5392/JKCA.2014.14.07.334>
18. Choi H, Kim J. Effects of the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contact on cultural competenc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9;14(1):17-24. <https://doi.org/10.15715/kjhcom.2019.14.1.17>
19. Peek E, Park C.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13;43(5):690-6. <https://doi.org/10.4040/jkan.2013.43.5.690>
20. Kim K. Effect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cultural empathy on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0;21(8):241-7. <https://doi.org/10.5762/KAIS.2020.21.8.241>
21. Hwang J.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multicultural nursing competency program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20(3):431-46.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3.431>